

[11] 임 속 영

이조 선조때에 나라에 큰별이 나타났다.

산골짜기의 오두막집에서 옥동자가 태어난 것이다.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 보다 특출히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어 다른사람보다 빠르게 선조 34년 26세에 진사에 올랐다.

진사에 있으면서도 이론이 뛰어나고 성격이 곧고 정직하여 동료들이 경원했다. 성균관에 10년간 있으면서도 뛰어난 이론과 성격이 곧고 정직한 까닭에 유소문은 대부분 임속영 진사가 썼다.

성균관에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남의 모범이 되는 일을 해서 승무원 정사에 이르렀다.

승무원 정사로 있으면서도 벼슬에 대한 탐욕이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생활하던중 광해군 4년(1612) 승무원 주서가 되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는 돕듯이 그의 청빈한 생활을 보기라도 하듯 주서가 된 것이다.

그 다음해에 영창대군의 모욕이 일어나 벼슬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자기수양의 길을 걸으려 했으나 잔당의 무고로 유배됐고, 인조반정후에 예문관 검열에 올랐다.

그 후로도 그는 선비로서 수양하여 곧 홍문관 정사를 거쳐 박사에 올랐다. 박사에 올라 그의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찼다. 그러던중 그는 부수찬을 거쳐 사헌부 지평등을 역임했다. 사헌부 지평에 있으면서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 그 후에 부제학에 추증하고 광주 구양서원에 배양되었다. 그는 인조때의 문신이었고 자는 무숙, 호는 소암, 본관은 풍천이었다.

욕심이 없는 청빈한 생활과 남을 헐뜯지 않고 자기의 할일을 다하는 그의 생활태도와 나라와 임금을 위하는 충성된 마음은 길이 여러사람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며 그의 정직함은 우리모두의 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